

Interview in Depth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이진환 기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겪다 결국 부도가 나는 일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chosun.com



이진환 기자 matthias horx@chosun.com

첨단 기술을 지향하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에는 '박물관 유물'이 되어버리고, 구식 자전거는 점점 더 사람받는 '테크놀로지 생태계'의 비밀은 무엇일까? 공상 과학 영화의 출연자처럼 생겼으면서도, 독일의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씨는 정작 공상 과학 영화 같은 미래론을 과감히 거부한다.

‘뛰어난 기술’ 아닌 ‘편안한 기술’을 추구하라

Cover Story 獨미래학자 호르크스의 '환상을 깨는 미래 전망'

강경희 기자

라고 역설한다. "책은 단순히 일개 매체가 아니라, 촉각, 청각, 시각, 그밖의 다양한 감각 체계까지 연결된 문화상품이기 때문" 이란다.

그는 자신 있게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결코 직선적이지가 않다"는 논리를 펴다. 기술이 발달한다고 반드시 로테크가 아닌 하이테크만이 승리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 "자연계에서 생물종들이 그렇듯 테크놀로지도 생존을 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른다"고 해석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음성 통화로 수다를 떨고, 얼굴 붉히며 사랑 고백하기보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로 사랑을 담아 보낸다. 왜? 해답은 '인간 속성'에 있다.

호르크스씨는 "음성 전화가 당연히 화상 전화로 발전하리라는 예상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소통)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근본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선진 문화에서,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는 통신 매체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효과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카메라 앞에서 경직되는 건 인간의 당연한 속성이기도 하다.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미소까지 지어야 하는 화상 전화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경직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불편한 테크놀로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화상 전화는 보고 또 보면서 실 새 없이 밀어(蜜語) 나누기를 즐기는 이탈리아 몇몇 지역에서만 유독 애용되는 주변적 기술이 되어버렸다.

책은 이미 국내에 여러 권 번역 소개됐지만, 미래학자인 호르크스씨가 한국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WDC 세계기자인도시 서밋'에서 '디자인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방한한 그를, Weekly BIZ가 만났다.

호르크스씨는 "혁신"을 이룬 애플의 아이폰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공장에서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산업시대의 '고전적 기업'이라고 유형지으며 "혁신이 이뤄진 이 시장에서 삼성은 어디에 서 있는가? 개척자가 못 되고, 2년 후쯤 뒤따라가서는 너무 늦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수줍어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제 컴퓨터 시대, 정보화 시대는 꼭짓점을 지나 하향하고 있다"는 과감한 진단을 내렸다.

C5면에 계속

khkang@chosun.com

천재가 말했다

“분명 최악은 지났다 그러나 안심은 말라”

이지훈 위클리비즈 에디터 박수찬 기자

그는 체스(Chess) 천재다. 여섯살에 체스를 시작해 열세살에 잡지에 체스 신동으로 소개됐고, 예일대 재학 시절에는 체스 세계 최고수에게 부여되는 그랜드 마스터(International Grand Master) 타이틀(골프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구 타이틀이다)도 땀다. 공부 때문에 방학 때만 틈틈이 체스를 했는데도 말이다.

'천재'라는 말을 그의 다른 이력이 붙어터라도 크게 들리지 않는다. 27세에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코노미스트를 시작으로 48세에 IMF(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됐고, 현재 하버드대 교수이자 뉴욕 연준 및 스웨덴 중앙은행에 자문하는 세계적 금융 석학이다. 그의 이름은 케네스 로고프(Rogoff).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한 '글로벌 코리아 2010' 행사차 방한한 로고프 교수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참이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선 "세계 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천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 최악은 지났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더블딕(경제가 일시적 회복 후 다시 침체되는 현상)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는 조심성 많은 경제학자답게 단서를 달긴 했다. 앞으로 2~3년간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2008~2009년과 같은 극심한 침체를 겪을 가능성도 여전히 15~20%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입에서 나온 15~20%란 수치는 거의 제로의 확률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최악은 지났다고 보는 그의 논거가 재미있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최근의 위기가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해 년 (이번은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국내 미출간))라는 책에서 지난 800년간 세계 66개국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를 데이터에 근거해 정밀 분석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위기는 늘 재발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늘 위기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의 신호가 와도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2~3년은 위기의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너무 짧다. 그래서 단기간에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위기가 닥쳐도 그것은 10~15년 후의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다고 안도를 하기에는 그의 표정이 꽤 심각했다.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그리스들을 보게 될 겁니다.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부도가 나는 국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C2면에 계속

jh@chosun.com

'미래의 삶'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짜증 내며 운전할 필요없이 가만 앉아 있어도 절로 안전하게 달리는 승용차로 출근하는 셀러리맨... 교통 체증이 괴롭다면 영화 '제5원소'에서 전직 특수요원 브루스 윌리스가 했던 것처럼 멋진 미래형 스카이카를 타고 빌딩 사이를 이리저리 날며 출근하는 건 어떨까?

가전제품들이 더 똑똑해지는 미래에는 '귀차니스트' 독신 남성들의 걱정도 덜어질 것 같다. 시들어 빠진 야채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팩 하나 남은 썰렁한 냉장고 대신, '똑똑한 냉장고'가 적절 알아서 근처 슈퍼마켓으로 주문서를 넣고 신선한 우유와 계란, 시원한 맥주를 늘 배달받아놓아서 살림 걱정도 덜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 정도의 첨단 기술은 이미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미래일 듯도 싶다.

지난달 24일 서울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1층 커피숍. 커다란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실눈을 뜬 채 미래학자와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선 속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듯한 이미지의 사나이가 포착됐다. 입고 있는 검정 양복 대신 우투복을 걸치면 영락없는 우주선 함장 같은 외모였다. 독일의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트렌드 전문가 마티아스 호르크스(Matthias Horx·55)씨였다.

직업도 외양도 '미래적'인 그에게, 잔뜩 상상했던 유토피와 같은 미래를 들으려는데 뜻밖에도 그는 "요즘 떠드는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은 완전 지옥"이라며 그 환상을 깨뜨려 버린다.

수많은 사람이 종이책의 퇴장과 전자책의 성공을 확신하는 이 시대에 호르크스씨는 "종이는 자료 보관에 탁월하고, 건전지도 필요없으며 다문되지도 않는다. 재활용 종이는 시력도 보호하고 신발 속도 채워주지 않느냐"며 엉뚱하게도 종이의 장점을 거듭 강조하는 '복고풍(復古風) 미래학자'다.

한 걸음 더 나가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아질 것"이

‘인간 속성’ 놓친 콩코드·화상전화 하이테크임에도 주변적 기술로 전락

많은 이가 전자책의 성공을 확신하지만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아질 것

그렇다면 '기술 생태계'에서 어떤 테크놀로지는 생존하고, 어떤 테크놀로지는 도태될까?

호르크스씨는 '박물관 유물'로 도태되어버린 하이테크의 대표 사례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제일 먼저 꼽았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 컴퓨터도 일도 할 수 있고 지상과의 통화도 가능해진 세상이라, '시간의 경제성'을 따져본다면 사람들은 굳이 비싼 돈 내고 런던과 뉴욕을 3시간 앞당기는 콩코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00년도 넘게, 진화의 최종 진화체로 상상해 왔던 '화상 전화'가 막상 현실화되어서는 별로 대접 못 받는 것도 비슷하다.



동계올림픽 드림팀의 성공 방정식

Trend & Issue

오서 코치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표정한 연아를 웃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김연아에게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녀 속에 잠재해 있던 예술 본능을 이끌어내 폭발하게 했다... 다른 금메달리스트들도 한결같이 승리의 비결로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한 것"을 꼽았다. C3면



기사관련 방송 보기 조선일보 Weekly BIZ 토요일 오후 4시50분, 화요일 오후 4시50분

Departure 현대카드 PRIVIA에선 말레이시아가 제주도보다 싸다! 코타키나발루, 랑가위, 쿠알라룸푸르 특급호텔 1박 7만원 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입실일 기준) 예약문의 02-2167-5098 / privia.hjundoicard.com